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접두사] 새-, 시-
[접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학습 활동] 다음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로 코끝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기 머문 지도 어느새 삼 년이 되어 간다. 돌이켜 보면 **복된** 나날이었다. 이웃들과 매일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어디서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①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복된'은 접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사랑스러운'은 접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안도했다.
- ㉢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

- ①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37. <보기>는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太子 | 앓겨 막스매 녀교되 비들 만히 니르면 몸 삶가 허야 닐오되 **금으로** 짜해 석로물 **뽀** 업게 허면 이 東山을 꼭로리라 須達이 닐오되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太子 | 닐오되 내 통담허다라 須達이 닐오되 太子人 法은 **거춸마를** 아니허시는 거시니 구쳐 꼭르시리이다

[현대어 풀이]

태자가 아껴 마음에 여기되 '값을 많이 이르면 못 살까.' 하여 이르되 "금으로 땅에 갈음을 튼 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팔겠다."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까." 태자가 이르되 "내가 농담하였다." 수달이 이르되 "태자의 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파실 것입니다."

-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뽀'를 통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니르산'을 통해 주체인 수달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太子人'을 통해 '人'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거춸마를'을 통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화는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ㄹ'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ㄹ'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예컨대 '만물[만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실래]'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은 동화음,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은 피동화음이라고 하는데, 동화는 동화의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 ㉠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같은 일부 특성만 닮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지만,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A]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표기 일람

(1) 모음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ㅝ	ㅞ
a	o	u	i	ae	yeo	yo	wa	

•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ㄱ	ㄷ	ㅂ	ㅅ	ㅁ	ㅇ	ㄹ
g, k	d, t	b, p	s	m	ng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르’은 ‘ll’로 적는다.

2.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38. (가)와 (나)를 참고해 <보기>의 ㉠~㉣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대관령[대:꺠령]에서 ㉡ 백마[뺑마] 교차로까지는 멀다.
 - ㉢ 별내[별래] 주민들은 ㉣ 삼목묘[삼몽묘]를 구입하였다.
 - 작년에 농장 주인은 ㉤ 물난리[물랄리]로 피해를 보았다.
- * ㉠~㉣는 지명임.

- ① ㉠: 중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대:꺠령]으로 발음되므로 ‘Dae:kwallyeong’로 표기해야 한다.
- ② ㉡: 초성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 [뺑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표기해야 한다.
- ③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별래]로 발음되므로 ‘Byeolla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 초성 위치와 중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삼몽묘]로 발음되므로 ‘sammongmyo’로 표기해야 한다.
- ⑤ ㉤: 초성 위치와 중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mullalri’로 표기해야 한다.

39.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과 ㉡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만을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곤란[꺠란]	국민[꺠민]	읍내[읍내]
입문[임문]	칼날[칼랄]	

- ① 곤란, 입문
- ② 국민, 읍내
- ③ 곤란, 국민, 읍내
- ④ 곤란, 입문, 칼날
- ⑤ 국민, 입문, 칼날

[40~42]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읽을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구르미
2021.02.06. 12:10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특곰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000.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불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들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먼 대 먼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이러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그 의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몽돌이'가 쓴 댓글은 수용자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구르미'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든 생각을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창의적 생산자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의식을 수용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은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매체 언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제시된 정보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③ ㉠: 매체의 사용 습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④ ㉡: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고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⑤ ㉡: 블로그에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매체의 과급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뒤로> 학생회장 후보자 지원단 대화방 (5명) <전송>

경호 애들아, 대화방 열었어.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한신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경호 응, 맞아. 의견 줄래?

소희 누리 소통방에 올릴 홍보 동영상은 우리의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을 잘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전에 만든 포스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어.

연주 좋은 생각이야.

한신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이야기판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파일 전송: 이야기판 양식.hwp(15.0KB)

지섭 내가 이야기판을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

소희 ㉠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 잘 드러나도록 소통에 관한 장면과 화합에 관한 장면을 하나씩 구성하자.

연주 ㉡ 소통 장면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화합 장면에서는 여럿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자.





한신 ㉢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를 각각 다른 장면으로 제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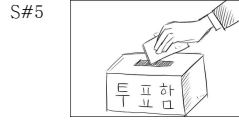
지섭 ㉣ 공약 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효과음을 넣자.

경호 좋아. ㉤ 내레이션으로 자막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자.

<전송>

(나)

	장면	장면 설명
S#1		(우측 상단에 슬로건 제시) 학생들과 함께, 후보자가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한다. [자막] 기호 ×번 김□□
S#2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 댄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학급별 소통함 제작 [내레이션]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S#3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한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한마음 축제 개최 [내레이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고를 만들겠습니다.
S#4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제시한다.



S#5

투표하는 손을 보여 준다.

[자막] 당신의 한 표를 기호 ×번에 행사하세요.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신'은 동영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하며 동영상의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소희'는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연주'는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의미를 제시하여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경호'는 휴대 전화 메시지의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지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판 검토 결과>

S#1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이 필요함.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에 제시되어야 함.
S#2 ~ S#4	슬로건을 일관되게 노출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
S#4	인터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 함.
S#5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해야 함.

- ① S#1에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제시한다.
- ② S#1의 자막을 '기호 ×번 김□□와 함께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로 수정한다.
- ③ S#2 ~ S#4에 S#1처럼 화면 우측 상단에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④ S#4에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막으로 제시한다.
- ⑤ S#5에 학생회장 후보자가 자막을 힘주어 읽는 내레이션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 한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를 가리킨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었다’는 어간 ‘들-’에 선어말 어미 ‘-었-’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하여 어간을 X, 선어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할 때, 어간에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언은 ㉠ X+Z로 표현될 수 있고,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용언은 ㉡ X+Y+Z 혹은 ㉢ X+Y₁+Y₂+Z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 대등적 연결 어미,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 종속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선생님: 다음 주에 있을 전국 학생 토론 대회 준비는 마쳤니?

라운: 아직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해답: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보렴.

라운: 창가 쪽에서 계신 분 말씀이요?

해답: 아, 수업 종이 울렸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자.

- ① ‘끝내겠습니다’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준비하기’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③ ‘들어가신’은 ㉢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계신’은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⑤ ‘울렸네’는 ㉢에 속하며, 이때 Y₂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36. <보기>의 ㉠ ~ ㉣를 윗글의 ㉠ ~ ㉣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 < 보기 —

-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 김이 습기를 먹[㉠]어 녹녹해졌다.
-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 우리는 상대방에게 한 골을 먹[㉡]고 당황했다.
-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 버렸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3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이다.

○ 프로그램의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의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 중 ㉠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표기된 자료	표준 발음	출력된 자료
끊어지다	[끄너지다]	끄너지다
없애다	[업:쌌다]	업쌌다
피붙이	[피부치]	피부치
웃어른	[우더른]	우더른
암탉	[암탁]	암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8. <보기>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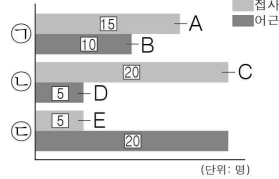
○ 탐구 개요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례

1.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 (㉠)
2. 그가 이 책의 지은**이**이다. (㉡)
3. 커다란 **안**밤을 주웠다. (㉢)

○ 학생들의 반응



○ 결과 분석 및 추가 예시 자료 제시

[가]

- ①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A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번'을 제시한다.
- ②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B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 ③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C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먹이'를 제시한다.
- ④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D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미담이'를 제시한다.
- ⑤ '사례 3'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E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알사탕'을 제시한다.

39.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휘 기픈 남근 **브**락매 아니 필썩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브**른 **ㅁ**래매 아니 그출썩 내히 이러 **바**락매 가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

- ① '불휘'와 '식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브락매'와 'ㅁ래매'를 보니, '애'가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하느니'를 보니, '하다'가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브른'과 '바락매'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내히'를 보니,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40 ~ 42] (가)와 (나)는 인쇄된 잡지에 실린 광고이고, (다)는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가장 가벼운 총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한 해 800만 톤. 사람들에게겐 편리한 작은 빨대 하나지만 바다 생물들에겐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서 바다 생물과 함께 지구 환경도 살릴 때입니다.

(나)

'미세 제로 공기 청정기'로 미세먼지 탈출하세요!

CADR(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 95m³/h

CADR(Clean Air Delivery Rate)은 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공기 정화 기능에 있어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단 만족도 (별 5개 만점)

평점: ★★★★★
 다른 제품보다 저렴하네요. ☺☺☺
 - 닉네임 '하늘 마루' 님
 평점: ★★★★★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
 - 닉네임 '좋은엄마' 님

(다)

생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

▶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
 ▶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헬스'를 이번 달 22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헬스의 복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이 효과는 감태 추출물 때문이다. 또 ○○헬스에는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어 ○○헬스 한 알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개선과 더불어 피로 회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그래서 ○○헬스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홍보 담당자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의 모든 소비자들이 ○○헬스를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기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 나아가 ○○헬스는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므로, 곧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보 김△△ 기자(kim@○○news.co.kr)

전체 댓글 2개 최근 순

↓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09:05

↓ 제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기대돼요! 08:01

4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글자 크기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수용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므로 내용과 관련된 수용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1. <보기>를 읽은 학생이 (가) ~ (다)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고는 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으로서, 목적에 따라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상업 광고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상품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제와 부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전문 등을 갖춰 일반적인 기사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는 언론사 명칭과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제시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 ① (가)는 환경 문제의 대처와 관련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공익 광고에 속하겠군.
- ② (나)는 특정 제품의 기능을 제시하여 제품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업 광고에 속하겠군.
- ③ (나)에서 특정 제품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와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특정 언론사 명칭과 기사 작성자 이름이 제시된 부분을 보면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다)는 특정 제품의 출시 정보와 효능에 관한 내용을 표제와 부제, 전문의 형식을 갖춰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사문 형태의 광고에 해당하겠군.

42.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를 사용하여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수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대상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의존 명사를 사용하여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명사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고 있다.

[43 ~ 45] (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만든 온라인 카페이고, (나)는 발표 자료의 수정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슬라이드에 활용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도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서 계신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지오가 올린 동영상과 내용이 겹쳐. 함께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지혜 [C]

호상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는 어르신들께서 의자를 직접 내리고 앉으시는 모습까지 담겨 있으니 이용 방법을 제시할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지혜

호상 그런데 내가 동영상 편집 방법을 잘 모르는데.....

[D]

지혜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

정말? 그럼 내가 너 대신 발표를 할게. 슬라이드를 제작한 사람이 내용의 흐름에 더 익숙할 테니까.

지혜

호상 고마워. 잘 부탁해!

해영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할 때 활용하면 좋겠어. 동영상을 또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

윤일 그게 좋겠다.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장수 의자에 적혀 있어서 언짢다고 하신 할머니 말씀은 글과 사진으로 정리할게. 내가 찍어 올린 사진 중에 할머니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 있으니, 이걸 함께 제시하면 할머니의 개선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 좋은 생각이야. 반영할게.

[E]

호상 참, 그런데 호상이가 올린 두 자료의 출처가 모두 없더라. 통계 자료 출처는 내가 검색해서 찾았어. 그런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 혹시 그림을 찾은 인터넷 주소 좀 알려 줄래?

지혜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

지오 그런데 개선 요구 사항이 표로 제시되어 있던데 워 그래프로 바꿔 제시하는 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

지혜 응, 그렇게 해 볼게.

43. (나)를 바탕으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A]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2'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기사 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보다 제작 배경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B]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4'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사진은 (나)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C]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3'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는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D]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1'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E]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5'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나)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 (나)를 고려하여 <보기 1>을 <보기 2>로 수정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설치 현황

개선 요구 사항

순위	내용	인원
1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2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32명
3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27명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보기 2>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① 설치 현황 ② 개선 요구 사항

㉠: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27명) ㉣: 장수 의자 좌석 폭 확대 (27명)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오: 홍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호상: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

해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지혜: 호상이와 해영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제부터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자.

㉠

- 호상: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 장수 의자에 대한 관심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윤일: 장수 의자에 앉아 신호등을 기다려 보세요.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
- 해영: 장수 의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웃어 보아요. 우리 지역의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 지혜: 안전을 위해 장수 의자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장수 의자에 머물면서 당신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지오: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부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 (ㄱ) 어느 뒤 請히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 (ㄷ) 이 두 말을 언늘 從히시려노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늘’은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 (나) 중세 국어
 - 내 인를 爲하야(내가 이를 위하여)
 - 내 인 도닐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스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새 出家호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군.
-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는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옳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요금[그행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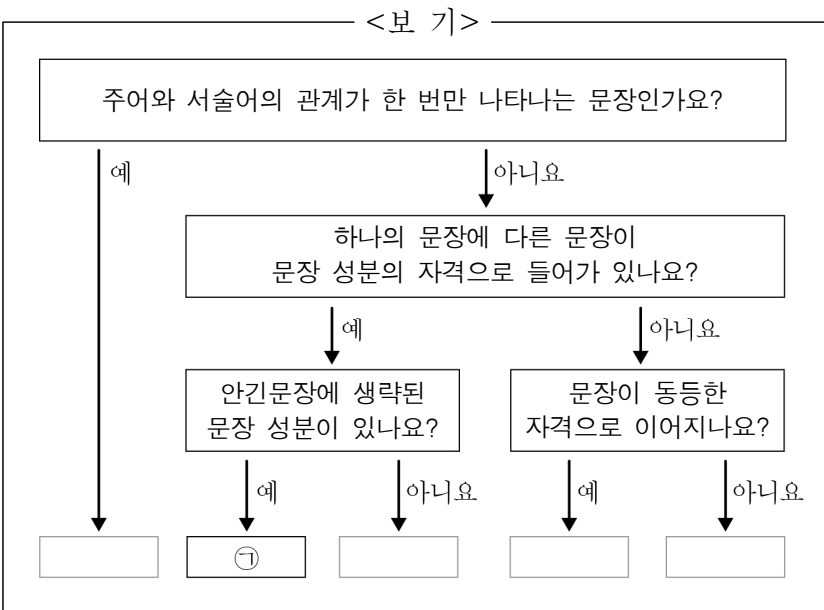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딘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딛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른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소설 UCC 제작 대화방

진희: 애들아, 만나기 어려우니까 영상 구성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해 보자.

민수: 좋아.^^ 우리가 선택한 <운영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서영: 그래. 공녀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만남,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자.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튼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진희: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그럴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진희: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진희: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야겠지?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진희: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언 부탁해.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운영전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김 진사	안평대군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	------	------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즐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물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즐거리 소개

[주요 내용]

-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즐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즐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21년 7월 00일(○)

○○신문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00.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00.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

연도	비율
1999년	3%
2009년	28%
2019년	40%

㉠ 김△△(◇◇박물관) 인터뷰 동영상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 △△(◇◇박물관)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6 2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1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기사를 모시고 ㉠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없다’ 등의 부정 의미의 용언과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다(*나는 그곳에 차마 갔다)’와 같이 ‘차마’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차마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차마 갈 수 없다(가지 못한다/가지 않는다)’를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에는 ‘차마’가 쓰일 수 있다.

한편,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이만저만’을 함께 써서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가 되면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만저만’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어렵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 것이다.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게 않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 ‘-찮다’나 ‘-찮다’로 축약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A]

* ‘*’는 비문임을 나타냄.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
 - ㄴ. 화단의 꽃들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 ㄷ. 나는 밤새도록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 ㄹ.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
 - ㅁ.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짱달짱했다.
-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ㄱ의 ‘아무런’은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군.
- ② ㄴ의 ‘여간’은 ‘탐스럽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③ ㄷ의 ‘밖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고 있군.
- ④ ㄹ의 ‘좀처럼’은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군.
- ⑤ ㅁ의 ‘움짱달짱했다’를 ‘움짱달짱하지 못했다’로 바꾸면 어법에 맞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했을 때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 료]		
㉠	국어사 자료	○ 이거슨 <u>귀치 아니권만</u> 은 보내느이다 [이것은 귀하지 아니하지마는 보내나이다]
	현대 국어	○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u>귀찮았다</u> .
㉡	국어사 자료	○ 봉늑 밧씨도 <u>별로</u> 먹을 거슬 주시며 [봉늑 밖에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며] ○ <u>별로</u> 인스홀 테도 업스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현대 국어	○ 요즘은 공기가 <u>별로</u> 좋지 않다. ○ 나에게 그는 <u>별로</u> 매력이 없다.
㉢	국어사 자료	○ 무슨 말이든지 다 못드르면 <u>시원치 안니호여</u>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현대 국어	○ 대답이 <u>시원찮다</u> .

< 보 기 >

- ㉠ ㉠에서, 현대 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 ㉡ ㉡에서, 현대 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 ㉢에서,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홀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홀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ㄱ, ㅋ, 'ㅌ, ㅍ, ㅈ, ㅊ, ㅌ, ㅍ,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ㅍ,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같다[갈다], 날겠다[날켤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가설 1: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 (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ㅌ'이 (㉡), '[자료] (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 (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 |
|---------|-------------|
| ㉠ | ㉡ |
| ①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②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③ 'ㄱ'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④ 'ㄱ'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⑤ 'ㅌ'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저희가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 ②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다.
- ③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 ④ 이 문제는 아버지께 여쭙어보자.
- ⑤ 지나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40~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채원'이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대화방(4명)

채원: 학교에서 준 가정 통신문 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는 거 말야.

준형: 그거 잃어버렸어. 혹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줄 수 있어?

현진: 이거 말하는 거지?

사진 파일 전송: OO고 가정 통신문(3MB)

채원: 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줄 몰랐어.

수예: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ㅠㅠ

준형: 이전에 내가 보낸 영상 봤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야. 못 본 사람은 꼭 봐. 여기 주소 눌러 봐. <http://www.△△△.kr>

수예: 나는 이미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라 재미있더라.

현진: 나도 지금 보내 준 주소로 들어가서 봤어. 짧지만 강렬하군!

준형: 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떠올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교 누리 소통망에 올리자!

채원: 좋아. ㉠ 카드 뉴스는 사진, 이미지 등을 비중있게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인 뉴스니까, 그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겠네.

현진: 핵심 내용을 간단한 문구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해야지.

㉡ 카드 뉴스를 볼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채원: 그리고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볼 거니까,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준형: 좋아. 내가 카드 뉴스 초안 만들어서 동아리 블로그에 올릴게. 보고 댓글로 의견 줘.

(나)

즐거이
오
리
를
감
습
니다.

1/6

우리 학교 급식의 실태는?

1/6: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
2/6: 걱정량보다 많이 받아서
3/6: 입맛이 없어서 기타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2/6

<p>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p> <p>○○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만 원)</p>	<p>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p> <p>“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 ○○고 영양사</p>
<p>3/6 급식 잔반을 줄이는 방안은?</p> <p>딱 먹을 만큼만 받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p>	<p>4/6</p> <p>잔반을 줄이면 ○○고 급식의 질이 오 올라갑니다.</p>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수예’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채원’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며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파급력을 밝히고 있다.
 - ⑤ ‘채원’과 ‘수예’는 그림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1. ‘채원’이 ㉠~㉣을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 메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을 고려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야겠어.
 - ③ ㉡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결합한 글자를 사용해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 ④ ㉢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⑤ ㉣을 고려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의 혜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42. 다음은 (나)에 달린 ‘덧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진: 두 번째 카드의 제목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준형: 맞아. 제목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에 조사 대상의 인원과 각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밝혀 주자.
↳ 현진: 그래프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자.
수예: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카드의 삽화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현진: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왜 급식을 남길까?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 (47%)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 (40%)
입맛이 없어서 (7%)
기타 (6%)

재학생: 300명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가 47%로 가장 높았고,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가 40%로 그다음이었다.

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

“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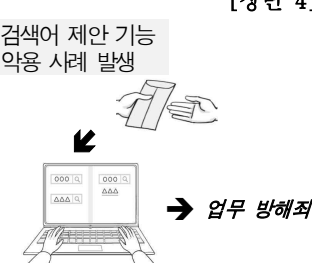
(가)

[장면 1] 진행자: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많으시죠?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소식을 유 □□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유 □□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3]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IT 전문가: 이렇게 검색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특정 업체명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천 회 반복하면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특정 업체가 검색어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장면 4]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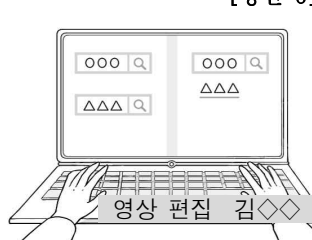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면 5]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포털 사이트 관계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차단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면 6] **영상 편집 김**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6면 2021년 ×월 ×일 화요일 사회 제 1210호 ☆☆신문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 열려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검색어 제안 기능’ 방향성 모색 토론회



최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기관의 주관으로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 정보 전문가들은 검색어 제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색어 제안 기능의 운영은 그 주체인 포털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민 단체 대표는 최근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㉕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은 “자율성과 공익적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기자 0000@000.co.kr

- ③ [장면 3]에서는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색어 제안 기능의 악용 사례를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보여 준다.
- ④ [장면 4]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 ⑤ [장면 6]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다른 다양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 주며 마무리한다.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㉒: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④ 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⑤ ㉕: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시민의 견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뉴스 생산자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뉴스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 ①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보도를 시작하며 수용자의 경험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뉴스 생산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43. (가)에 사용된 정보 제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보도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 내용의 요점을 제시한다.
- ②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는 뉴스 수용자가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 한쪽에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훙이[훙치]	훙어[훙터]	엿는[언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훙이[훙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ㅈ’이 ‘ㄷ’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훙어[훙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ㅈ’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엿는[언는]’은 ‘ㄴ’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36.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 ①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 ②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
- ③ 학생이었던 삼촌은 마흔 살이 되었다.
- ④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 ⑤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 ②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 ③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④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 ⑤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으)ㄴ’이 있다. 접미사 ‘-(으)ㄴ’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묶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ㄴ’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으)ㄴ’이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에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으)ㄴ’은 ‘-았/었-’, ‘-겠-’, ‘-(으)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 파생 명사와 ㉡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싸 그림과[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림’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에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오)ㄴ’과 명사형 어미 ‘-음/움’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움’이 쓰였다. 그러다가 ‘·’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으)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8. 윗글을 통해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
- ㄴ.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 ㄷ.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 ㄹ.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앓이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 ㅁ.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 ① ㄱ에서 ‘고난도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② ㄴ에서 ‘죽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③ ㄷ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앓’의 ‘-ㅁ’은 ‘알-’에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 ⑤ ㅁ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끼어 들 수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언들의 ㉠과 ㉡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 | |
|---------------|----|----|
| | ㉠ | ㉡ |
| ① (물이) 얼다 | 어름 | 어름 |
| ② (길을) 걷다 | 거름 | 거름 |
| ③ (열매가) 열다 | 여름 | 여름 |
| ④ (사람이) 살다 | 사름 | 사름 |
| ⑤ (다른 것으로) 낚다 | 꺄름 | 꺄름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김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기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일부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진행자: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여러 매립지의 포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행규칙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바뀐 시행규칙에 맞추어 원활한 소각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매립지에 묻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감소하는 양이 크군요. 제가 볼 때는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은 충분한 편인가요?

김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소각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된 △△ 지역 주민의 얘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지역이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김 기자: 그리고 ㉠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진행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네요. 이번에는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 기자: 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죠.

진행자: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공원이 아닌가요?

박 기자: 네, 맞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지하에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지하화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제 생각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요?

박 기자: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소각 시설 설치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주민들이 소각할 때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어요?

박 기자: ○○시 소각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

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시는 소각 시설과 관련한 앱을 만들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그 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박 기자: 네, 화면 보시죠. 이렇게 ㉠ 앱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원하는 내용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 처리 공정을 누르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 대기 오염 농도를 누르면,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각 시설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다면 ㉣ 시설 견학 신청을, 제안하려는 의견이 있다면 로그인한 후 ㉤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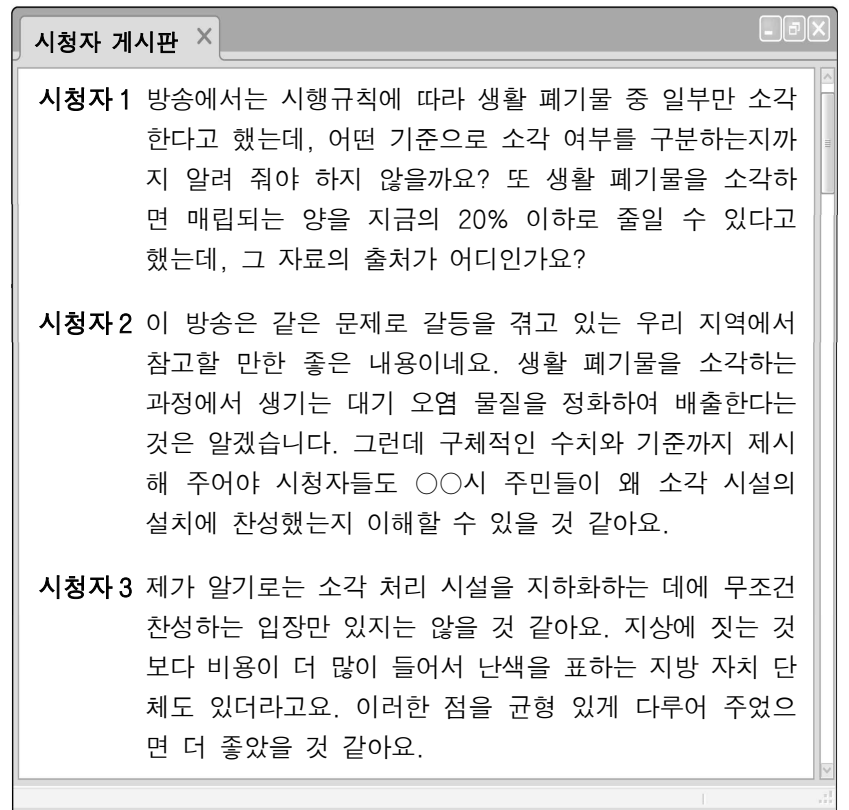
40.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
- ② 김 기자는 인터뷰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군.
- ③ 박 기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언급된 문제 상황이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④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 ⑤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 방안에 내재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군.

41.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때, ㉠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는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소각 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다음은 위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효과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의 지하화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자 2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 지하화의 비용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가령 ㉠을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주민들이 [A] 성토했습니다.

- ①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②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③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 ④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라고
- ⑤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44~45] (가)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영'이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수: 드디어 다 모였네. 모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니 참 편리하다.
 가람: 맞아. 그런데 현수는 카메라를 안 켜네? 대면 회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니 모두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수: 앗, 그렇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게.



준영: 좋아. 내 목소리 잘 들려? (화면 속 학생들을 살피며) 다들 잘 들리는 것 같네. 오늘은 축제에서 사용할 동아리 활동 소개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 혹시 일정표 갖고 있지?
 예나: 내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파일 전송할게.

파일 전송: 동아리_활동_발표회_일정표.hwp(256 KB)

준영: 고마워. 예나가 보낸 파일을 보니 발표 시간이 짧아서 올해 진행한 행사들만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면 될 것 같아.
 예나: 그럼 계절에 따라 진행한 행사 사진을 각 슬라이드에 넣으면 어때?
 현수: 좋은 생각인데, 나한테 봄에 '○○ 공원 사진 촬영'에서 찍은 동영상 있어.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 줄게. (화면을 공유한다.) 이게 괜찮으면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삽입하면 어떨까?
 가람: 오, 난 좋은데? 이것 삽입하면 행사 모습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 여름 행사는 '사진 강연'이지?
 현수: 맞아. 아까 예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사부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서 청중에게 보여 주면 될 것 같아.
 가람: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강연이었는지를 알 수 없잖아. 강연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무슨 주제로 강연했는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예나: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럼 가을에 한 '옛날 사진관' 행사도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자.
 준영: 근데 그 행사는 촬영한 사진들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동아리 블로그에 사진이 많이 있으니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도 삽입하면 어떨까?
 예나: 그게 좋겠다. 마지막 행사는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인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으니 슬라이드에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행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가람: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아. 느낀 점은 발표자가 따로 언급만 하는 것으로 하자.
 준영: 그러자. 내가 초안을 만들 테니 나중에 함께 검토해 줘.

(나)

<p>슬라이드 1</p> <p>사진 동아리 △△의 봄</p> <p>△△ 부원 모두가 함께한 '○○ 공원 사진 촬영'</p>	<p>슬라이드 2</p> <p>사진 동아리 △△의 여름</p> <p>김□□ 작가의 '사진 강연'</p> <p>· 강연 일시: 20××.××.××. · 강연 장소: 본교 소강당</p>
<p>슬라이드 3</p> <p>사진 동아리 △△의 가을</p> <p>복고를 주제로 많은 학생들을 촬영한 '옛날 사진관'</p> <p>≡ 사진 더 보기 (동아리 블로그로 이동)</p>	<p>슬라이드 4</p> <p>사진 동아리 △△의 겨울</p> <p>'장수 사진 봉사 활동'</p> <p>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건강한 미소를 사진에 담아낸 재능 기부 활동</p>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수'는 대면 회의보다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온라인 화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가람'은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회의의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준영'은 화면을 살피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⑤ '현수'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동영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모습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 1'에 행사 사진을 추가한다.
- ② '사진 강연'의 내용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진행한 행사를 청중에게 계절 순서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에 제시된 행사를 맞바꾼다.
- ④ '옛날 사진관' 행사와 관련하여 청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3'에 제시된 사진을 삭제한다.
- ⑤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4'에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 조사 ‘이’, ‘만’, ‘도’와 결합한 것을 발음되는 대로 적으면 ‘꼬치’, ‘꼐만’, ‘꼐또’이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꽃’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표기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표 형태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씨요], [인는데요], [인떠라고요]와 같이 발음한 것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대표 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있-’, ‘인-’, ‘인-’ 중에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인는데요]는 비음화, [인떠라고요]는 된소리되기로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씨요]는 설명할 수 없다.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이씨요]와 [인떠라고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있-’을 대표 형태로 선택하면 [이씨요]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으로, [인는데요]와 [인떠라고요]는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있-’을 대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놓으니’, ‘놓다’는 [노으니], [노타]로 발음되는데 어간을 ‘놓-’이라는 대표 형태로 고정하여 적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 형태가 ‘노-’라면 [노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놓-’이라면 [노으니]는 탈락, [노타]는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 ① ‘들어’를 발음할 때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군.
- ②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적지 않은 경우이군.
- ③ ‘여름’,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군.
- ④ ‘끝이’를 ‘꼬치’로 적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이군.
- ⑤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36. ㉠을 고려하여 <보기>의 ㉠ ~ ㉡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 다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이다.

어간 \ 어미	-고	-아서	-지만	-는
㉠	[깅꼬]	[까까서]	[깅찌만]	[깅는]
㉡	[달꼬]	[다라서]	[달치만]	[달른]
㉢	[싸꼬]	[싸아서]	[싸치만]	[싼는]
㉣	[할꼬]	[할타서]	[할찌만]	[할른]
㉤	[갑꼬]	[가파서]	[갑찌만]	[갑는]

- ① ㉠: 대표 형태가 ‘깅-’이라면 [깅찌만]과 [깅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깅-’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꼬]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싸꼬]와 [싸아서]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쌍-’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④ ㉣: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할꼬]와 [할찌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⑤ ㉤: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갑꼬]와 [갑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37.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앞 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나,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레 쏘이고 통통 부었다. ㉣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羅雲(나운)이 저며 노르슬 즐겨 法(법) 드로물 슬히 너겨 흐거 든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중)흐습디 아니흐더니 後(후)에 부테 羅雲(나운)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맞나미 兒려보며 法(법) 드로미 兒려보니 네 이제 사르미 모물 得(득)하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兒테 게을러 法(법)을 아니 듣는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나운이 어려서 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니, 부처가 자주 이르셔도 따르지 아니하더니, 후에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법을 듣기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 ① '부테'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니르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從(중)흐습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兒려보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르미'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 43] (가)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진행표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
 초대 손님: 자율 주행 연구소장 최○○ 교수
 #1. 시범 사업을 △△시에서 하는 이유는?
 #2. 시범 사업의 성과는?
 #3.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은?

(나)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최○○ 교수님과 우리 △△시의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는 관련 연구 시설이 있고, 도시의 도로 조건이 새로운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시의 입장에서 일반 대중교통의 운행이 힘든 시간대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 **사전 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네, 이번 사업을 통해 ㉢ **우리 연구소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운행 중 운전자의 개입 횟수를 줄여 자율 주행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10점 만점에 9.2점이더군요. ㉣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네요.**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의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 사전 체험단에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군요. 자율 주행 버스에 안전 요원이 상시 탑승해 있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직접 운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네, 앞으로는 ㉤ **지역 주민 중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기존 노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청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최 교수님의 도움으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남기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 **청취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0.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 ②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 ③ '#2'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2'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군.
 - ⑤ '#3'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41. 다음은 ㉠의 일부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청취자 1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율 주행 버스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오늘 방송에 안 나왔네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 2 다음 달부터는 저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버스 탑승 시간이 궁금했는데, 버스 시간표를 알려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청취자 3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 ④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 ⑤ 청취자 2와 3은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조사 '에'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나)에서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 ②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에서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 ③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 ④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4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4 ~ 45] (가)는 환경 동아리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기후 행동'

지구의 기온이 1℃만 올라가도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위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들이 바로 기후 행동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의 동아리들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사회 참여 동아리에서는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왼쪽 사진과 같이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입니다. 인근 학교의 동아리에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옷에도 환경 인증 등급을 적용해 달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의 활동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 행동은 개인의 일상적 실천의 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학생 기자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 기후 행동의 국가 간 차이를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 인근 학교 동아리의 페트병 수거 현황을 소재목을 사용하여 부각하였다.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 기후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 주었다.

(나)

화면 구성	화면 설명										
<p>1</p>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시작 화면을 제시함.										
<p>2</p> <table border="1"> <caption>기후 행동 체크리스트</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빈 교실 전등 끄기</td> <td>✓</td> </tr> <tr> <td>급식 남기지 않기</td> <td></td> </tr> <tr> <td>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구체적 항목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실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p>3</p>	자신의 실천 일지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겠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접속 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며, 이때 나열된 단어나 구들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이)랑, (이)며, 하고’ 등이 있다. 이 중 ‘와/과, (이)랑, (이)며’는 ‘봄에 개나리와 철쭉꽃과 진달래가 핀다.’에서처럼 결합하는 체언의 음운 환경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즉,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

[A] 랑, 며’가 쓰이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 이랑, 이며’가 쓰인다. ‘(이)랑, 하고’는 체언이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할 수 있어서 ‘삼촌하고 이모하고 다 직장에 갔어요.’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 ‘와/과’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꽃과 나무를 사랑한다.’에서 접속 조사 ‘과’가 쓰인 ‘꽃과’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나는 누나와 눈이 닮았다.’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누나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중세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며, (이)여’ 등이 있는데 ‘와/과’의 결합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ㄱ. 나모와 꾀과 果實와는 [나무와 꽃과 과실은]

ㄱ처럼 중세 국어에서 ‘와’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고 ‘과’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한다. ㄱ의 ‘果實와’에서처럼 ‘와/과’는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지막 체언과 결합한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며, (이)여’는 ‘열거’의 방식으로, ‘하고’는 ‘첨가’의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35. [A]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을’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② ‘네가 벼루와 먹을 가져오너라.’에서 ‘벼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들을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④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로서 ‘가방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
-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와 같이 ‘하고’는 결합하는 체언의 끝 음절의 음운 환경이 달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옷과 뵈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옷과 베로 불상을 꾸미었어도]
- ㉡ 子息이며 종이며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호느니라
[자식이며 종이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하느니라]
- ㉢ 밤과 낮과 法을 니르시니
[밤과 낮에 법을 이르시니]
-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호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① ㉠에서 ‘옷과 뵈와’는 접속 조사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군.
- ② ㉡에서 ‘이며’는 열거의 방식으로 ‘子息’과 ‘종’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를 보니,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 ‘와/과’가 결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와 ㉣를 보니,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와 ㉣를 보니,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과’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은 ‘와’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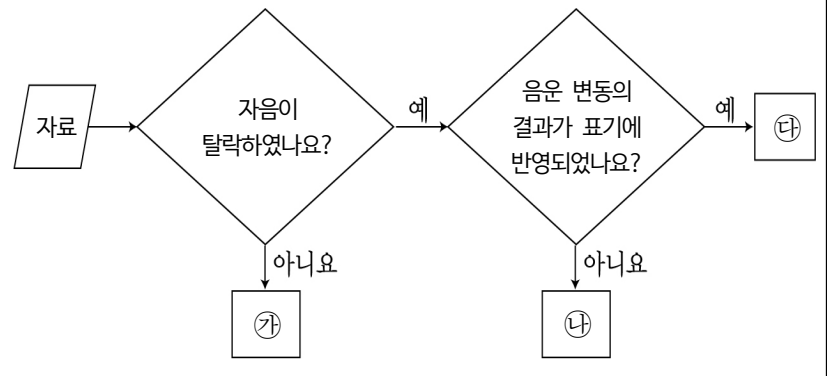
<학습 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 ㅌ- + -어서 → ㅌ서[ㅌ서]
- ㉡ ㄷ글- + -ㄹ → ㄷ근[ㄷ근]
- ㉢ ㅈ- + -아 → ㅈ아[ㅈ아]

[분류 과정]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a | b | c |
| ③ | c | a | b |
| ④ | c | b | a |
| ⑤ | b | a | c |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의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등의 변화 탐구하기

[탐구 자료]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그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서울에 갑니다.”라고 말했다.	⇒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했다.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 ㉢

- ① ㉠: ‘오늘’을 보니, 직접 인용절의 시간 부사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났군.
- ② ㉠: ‘간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③ ㉡: ‘맡기라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 간접 인용절의 인용 조사는 ‘고’가 사용되었군.
- ④ ㉢: ‘그곳이’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관점으로 지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⑤ ㉢: ‘아름답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절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뀌어 나타났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지혜: 쉬고 있는 걸 보니 안무를 다 ㉠ 짚나 본데?

세희: 아니야, 잠시 쉬고 있어.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 잇을까 싶어 걱정이야.

지혜: 그렇구나. 동작은 너무 멋있던데?

세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구성까지 어려우니까 몇몇 친구들은 그만 ㉢ 포기해 버리더라고.

지혜: 그럼 내가 내일 좀 ㉣ 고쳐 줄까?

세희: 괜찮아. 고맙지만, 오늘까지 ㉤ 마쳐야 해.

학생: [A]

- ①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② ㉡에는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③ ㉢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④ ㉣에는 화자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푼다는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⑤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43] (가)는 도서관에서 주관한 실시간 인터넷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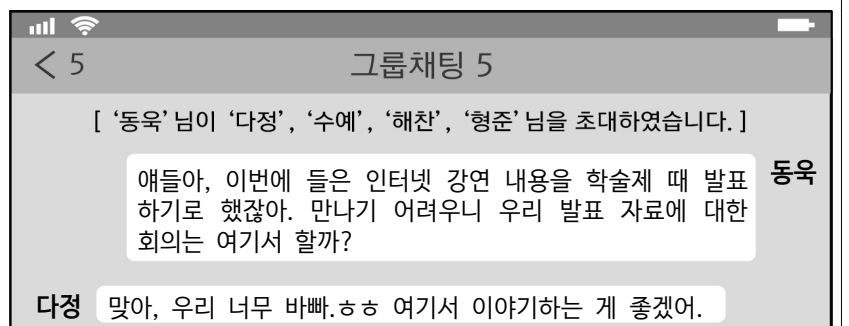
(가)
안녕하세요? ‘다매체 시대, 듣기는 또 하나의 독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할 △△학회의 이□□입니다. 강연에 앞서 독서 실태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하나 해 볼게요. 지금 보내 드리는 ㉠ 링크를 누르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 화면을 가리키며) 자, 결과가 나왔네요. 한 달 평균 3시간 이내로 독서한다고 답하신 분들이 많군요.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 지난 10년 사이에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채팅창의 답변을 확인하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얻는 전통적 방식인 종이책은 읽는 데에 오랜 시간과 강한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 독서가 정보 습득의 중요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휴대성 및 편의성을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만 활용하지 말고, 독서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발표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일상 속의 독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아, 방금 채팅창에 ‘너무 바빠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중 ‘시간이 없어서’가 두 번째로 높아요. ㉣ 그래서 제가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외에 다른 독서 방식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는 주로 활자를 보고 읽으면서 독서를 하지만, 이는 소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신경과학자들은 단어를 읽거나 듣거나 상관없이 ㉤ 뇌의 인지과 감정 영역이 모두 유사하게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오디오북은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독서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책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자투리 시간도 독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출근길이나 산책 중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독서가 가능한 것이죠. 휴식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편안히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오디오북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서 동기를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종이책과는 다르게 훼손 위험이 낮고 손쉽게 저장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시간 청취 시 청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라든지,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



수예 지난 번 회의에서 오디오북을 소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고 했었지? 일단 종이책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찬 독서율이 감소한 것은 다 아니까 그보다는 [슬라이드 1]에 독서 저해 요인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한눈에 보여 주자.

수예 알겠어. 그런데 강연자님은 성인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셨는데 발표를 들을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 학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내가 찾은 자료인데 한번 볼래?

수예 사진 파일 전송: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학생).jpg

와, 훌륭한데!^^ 그럼 [슬라이드 2]에서는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전달하자. 이런 내용을 문구로 만들고, 효과음도 넣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

동욱

형준 그러자. 그리고 [슬라이드 3]에는 오디오북의 장점을 제시하자. 화면을 분할해서 장점을 항목화하여 표현해 볼까?

다정 멋진 생각이야. 그런데 오디오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은 정확한 근거를 보여 줘야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찾았거든.

해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슬라이드 4]에는 강연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 주자. 화면 아래에는 자막을 넣어 강연 내용도 정리해 주고.

형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5]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긴 도서를 제공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을 소개할까? 이걸 내가 골라서 정리해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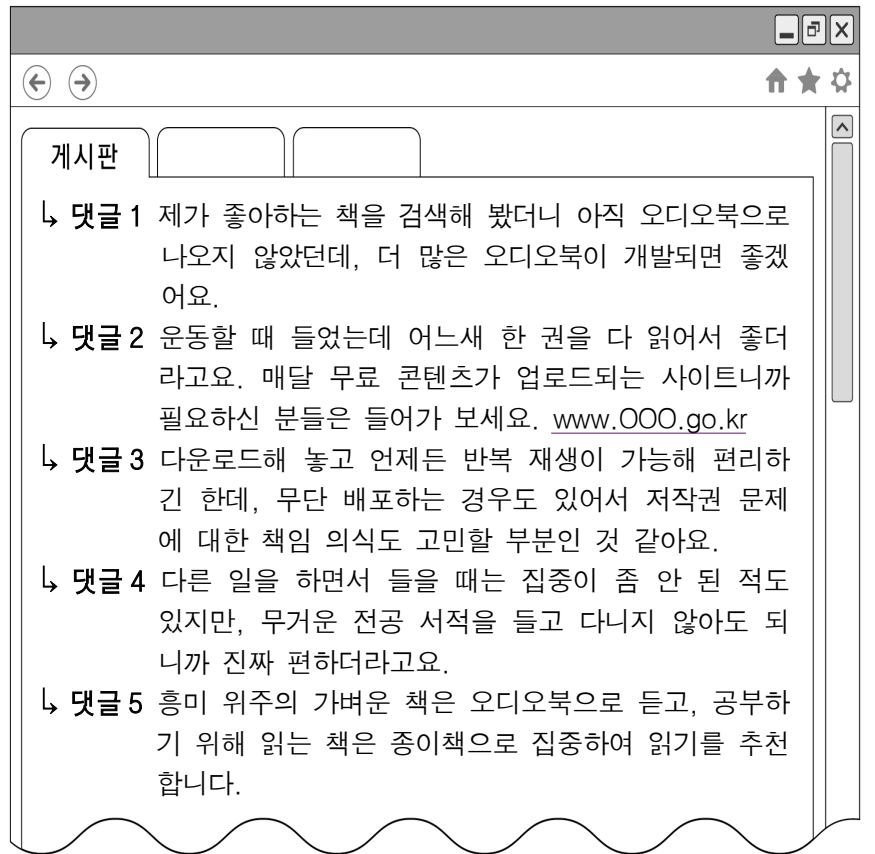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수 문자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 ‘나’를 활용하여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관용 표현 ‘두말할 나위가 없다’를 활용하여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2. 다음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를 들은 후 도서관 게시판에 단 댓글이다. 댓글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1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오디오북이 제작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② 댓글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댓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떠올리고 있군.
- ④ 댓글 4는 오디오북이 지닌 휴대성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를 높인다는 강연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⑤ 댓글 5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군.

4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예’는 발표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강연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 ② ‘동욱’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슬라이드 2]에서 전달 내용을 문구로 제시할 때 음향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 ③ ‘다정’은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3]에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④ ‘해찬’은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 4]를 문자와 영상을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5]를 자신이 선별한 정보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44~45] (가)는 OO고등학교 학생회 블로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회가 제작한 앱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
 ○○고등학교 학생회 2022. 7. 00. 0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생회는 우리 학교 숲의 사진과 텃밭의 탐구 자료를 정리하여 '생태 환경 자료집'을 e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숲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0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숲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어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그 사진들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회에서도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숲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모아 이와 같은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 사진을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우리 학교에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는 1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 식물들에 대해 탐구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텃밭의 식물들을 탐구한 자료들도 함께 실고자 합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식물 관찰 일지를 첨부하니 이 예시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식물 관찰 일지.pdf

숲 사진과 텃밭 탐구 자료를 많이 업로드해 주실수록 자료집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텃밭 자료를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52 | 공감하기 102

김○○: 블로그 자료들을 모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에 대한 기록을 앱으로 만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 학생회장: 좋은 생각이네요.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우리 학교 프로젝트

- 학교 숲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학교 텃밭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묻고 답하기
 - 들어가기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내용에 반응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학교 숲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료를 올리려는 학생들이 해당 게시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⑤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회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앱이다.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OO고등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간의 기록!

- 학교 숲 '사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학교 텃밭 '탐구 자료'
 - 꽃 식물
 - 쌍떡잎 식물
 - 외떡잎 식물
- 자료 더하기
 - 숲 사진
 - 식물 관찰 일지

- ① 프로젝트의 제목을 반영하여 앱의 제목을 바꾸고, 학교 이름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② 항목별로 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여 알려 주고, 구분되어 있지 않던 항목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으로 나누자.
- ③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를 나누는 기준을 학년에서 식물의 종류로 바꾸어 탐구 자료를 식물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 ④ '학교 숲' 항목은 사진을 연도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확인할 수 있게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묻고 답하기' 항목을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숲 사진과 식물 관찰 일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